

지난 6월 15일, 독일 정부가 앞으로 20년 안에 독일 내 원전 19개 모두를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시민과학자로 투철하게 산 타카기 진자부로오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 문제아에서 반핵운동가가 되기까지

1997년 12월 4일 스웨덴 국회에서

또 하나의 노벨상이라는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을 받

던 타카기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인생의 반 이상을

‘반원전’ 또는 ‘탈원전’으로 살아온

그는 현재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죽음을 눈앞에 뒀음에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타카기 학교’를 열어, 시민과학자를 양성하며, 시민들에게 과학기술분야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타카기는 말한다. “죽음을 앞두고 내세나 영생 등의 사후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이런 독백에서 그의 철저한 시민과학자로서의 생애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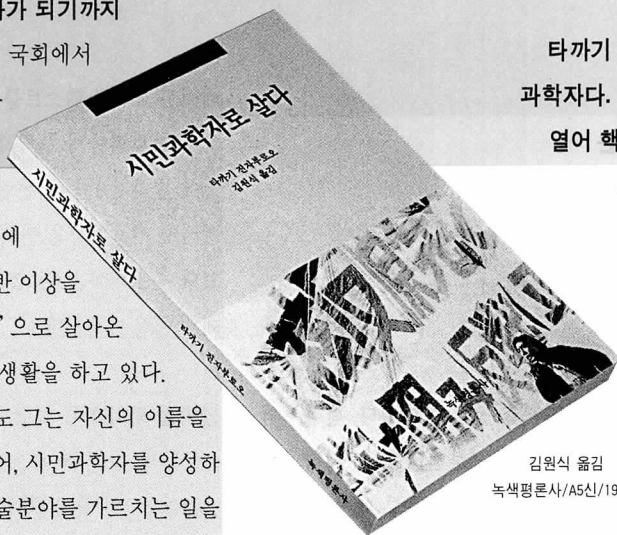
타카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원폭을 간접체험한 세대다. 다소 문제아였던 초등학교 시절, 형제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나름대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중학교 시절의 시골뜨기 문학 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우등생으로 변신해 도쿄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자서전적인 묘사는 타카기가 바로 우리의 이웃인 양 느끼게 한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일본원자력사업주식회사 사원 시절에 간다에 있는 현책방에서 월급의 5분의 1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시보그의 《초우라늄 원소》를 샀다는 대목에서는 과학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그의 의욕을 엿볼 수 있다. 플루토늄이 무한정의 에너지를 얻는 신원소라는 시보그의 장밋빛 예언에 감동한 그는 ‘시보그의 뒤를 잇자’고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그의 인생은 시보그를 비판하는 일에 매진하게 된다.

## 반핵운동의 ‘밀알’이 된 한 과학자의 삶과 사상

타카기 진자부로오의 《시민과학자로 살다》를 읽고

이면우 | 춘천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김원식 옮김  
녹색평론사/A5신/190면/7000원

타카기 진자부로오의 평생을 반핵운동에 몸바친 시민운동가이자 과학자다. 그는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타카기 학교’를 열어 핵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지은이가 시민과학자로 산 자신의 일생을 서술한 이 책은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있다.

선언’을 한다. 타카기는 주장한다. “플루토늄에 미래는 없으며, 또한 미래를 말할 수도 없다”고.

시민과학자로서 타카기는 방사능의 공포에 대해 어려운 미적분식을 동원한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방사능이 누출되면 사람들 모두 죽는다는 식의 공포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다. 그가 표현한 방법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다는 아주 적절하고 일상적인 비유였다.

겨우 한칸 규모에 불과한 작은 개인 사무실이었던 원자력자료정보실을 NGO 수준까지 올려놓은 암환자 타카기의 시민과학자로서의 일생, 투병 중에도 시민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젝트인 타카기 학교를 추진하는 그의 모습은 진한 감동을 준다.

이 책은 원전을 반대하기 위해 씌어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글이 아니다. 다만 저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책의 제목으로 삼았듯이 시민과학자로 투철하게 살았던 자신의 일생을 담담하게 서술한 하나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반핵을 주장하는 어떤 강력한 논설이나, 원자력 발전의 피해를 다룬 기사보다 한 인간의 작은 실천을 보여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원전에 대한 좀더 분명한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타이이타이병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학자들이 풍토병이라고 발표할 때 그는 과학자들에게 강한 분노를 느꼈다. 산리즈카(三里塚) 농민들의 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 운동을 직접 목격하게 된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고, 결국 어렵게 얻은 도쿄도립대학 교수직도 던져버린다.

### “플루토늄에 미래를 말할 수 없다”

번역과 집필로 겨우 생활을 꾸려나가던 타카기는, 1975년 9월 한 빌딩의 5층에 작은 방을 마련해 원자력자료정보실을 창설한다. 이후 체계적으로 플루토늄 독성을 연구하고,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나갔다. “연구자였을 때에는 나무만 볼 수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니 숲이 보였고, 이후 반원전론자이자 탈원전론자가 되었다”고 그는 술회한다. ‘죽음의 재’ 보다는 그 속에서 발견된 새로운 원소가 중요하다는 과학자의 태도에 환멸을 느낀 그는, 죽음의 재에 의한 오염과 방사능 문제, 원전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이었다. 1993년에 그는 시보그에 대한 자극과 그에 대한 행동의 표현으로 ‘탈 플루토늄